



푸른정보기술(주)

매출 5백억을 향해 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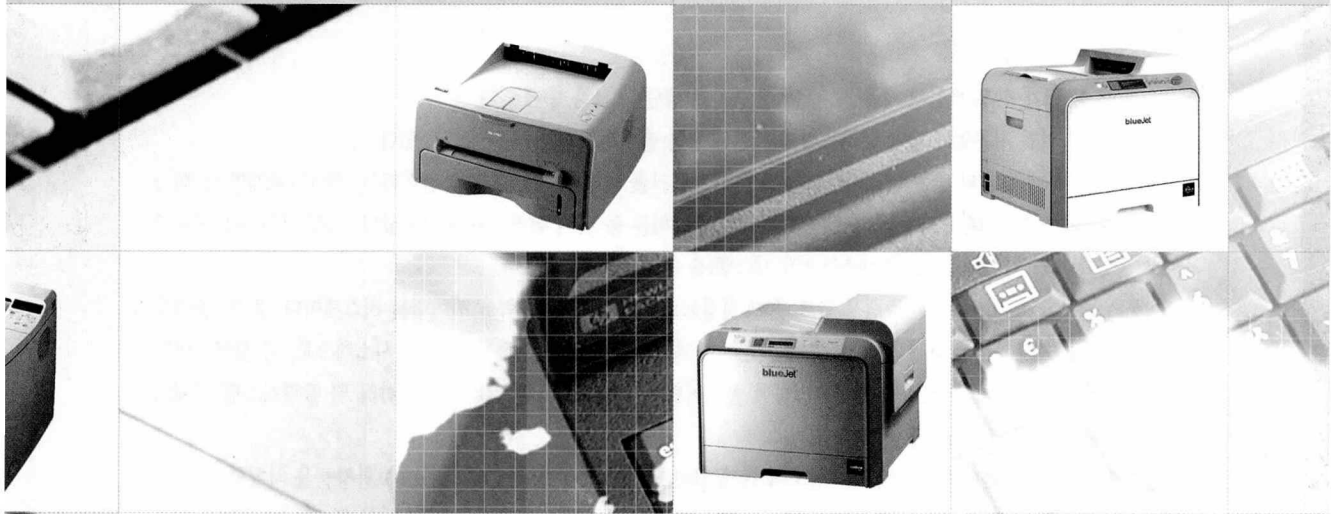
푸른정보기술[주](대표 신승현)는 1992년 설립 이후 프린터 관련 전문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

서울 본사와 용인사업장, 중국 위해[威海] 현지 법인을 가지고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도 발벗고 나서고 있는 푸른정보기술은 핵심 기술의 자체 개발을 통하여 기업통합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고 있다. 각종 OA 환경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DB를 보유하고 있어 사용자의 니즈에 언제나 대응 가능한 능력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제품 전문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해부터 Digital TV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기술로 TV Tuner 및 PVR 내장제품 개발을 완료한 경쟁력을 갖춘 젊은 기업이다.

●● 디지털 종합기기 프린터 전문기업

푸른정보기술은 1992년 (주)한섬정보통신으로 프린터 시장에 뛰어 들었다. 이후 93년과 94년에 잉크젯프린터(BJ330H)와 컬러 잉크젯프린터(HS-450C)를 개발했다. 그리고 97년 레이저 프린터도 개발하면서 설립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1998년 지금의 푸른정보기술(주)로 상호를 변경하고 공장을 설립하면서 삼성전자에 레이저프린터를 ODM으로 납품하게 된다. 다음 해에는 NPS(Network Print Server)의 제조 및 판매를 시작했으며, 이듬 해에는 롯데 캐논에도 레이저 프린터 납품을 시작했다. 삼성전자, 롯데 캐논 등 국내 굴지의 프린터 회사에 납품하게 된 것이다. 이후 2001년 벤처 기업으로 인증 받는 한편 ISO 2000 인증을 획득하면서 기반을 탄탄히 했으며, 이에 따라 빅스트 창투와 TG 벤처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2003년 자가 브랜드를 단 레이저 프린터를 출시하면서 본격적



인 사업 확장의 기회를 맞이했다.

지난 해는 푸른정보기술이 국내 시장 확대에 노력한 한 해였다. 그동안의 프린터 기기 기술 개발의 노하우를 살려 Digital TV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SecuPrint(출력보안솔루션)'을 개발, 출시했다. 또 PCL6 자체 개발을 완료했다. 연말에는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면서 그동안의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프린터 기기는 주위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기기로 흔히 정보통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LAN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하면서도 광학원리를 이용한 정밀 광학제품이 프린터이다.

기계·광학·전자적 기술이 모두 요구되는 종합 기기인 프린터는 또한 라이프 사이클이 매우 짧은 기술 개발이 곧 바로 수익과 직결된다. 따라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히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든 산업이다.

푸른정보기술은 이러한 프린터 시장에서 그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냈다.

지난 해 9월 160억 매출에 10억의 경상 이익을 내고, 올 해에는 매출 230억, 2006년에는 매출 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06년 매출 5백억 목표

푸른정보기술은 레이저프린터 기기의 제조 판매 및 각종 Emulation, 보안솔루션 개발, NPS(Network Printer Server)를 생산하고 있다.

푸른 정보기술이 개발한 레이저 프린터는 각각 삼성전자와 롯데캐논에 납품되고 있으며, 중대형 Line 프린터 개발 및 판매는 대신정보통신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시작한 자가 브랜드 프린터로는 Full-COLOR 군, 가격 경쟁을 위한 A4 MONO 군, A3 MONO 군, 또한 고속기 군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레이저 프린터 제품이 생산, 판매되고 있다.

또 Printer NPS(Network Print Server), 유선(10/100 Base TX), 유무선 일체형(10/100 Base TX802.11b)

N/W Card 등 14개 삼성 프린터 제품군, 총 98개 품목을 생산 및 납품 중에 있다.

또한 프린터 기기 전문업체 답게 문서출력과 관련된 보안 솔루션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전자문서가 사내 컴퓨터 망을 떠돌아다니는 요즘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실적, 경영전략회의, 첨단기술개발 등 회사의 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는 국내에서만 수 조원에 달하는 등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푸른정보기술에서는 SecuPrint™ Solution(문서출력보안 시스템)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SecuPrint™ Solution은 문서출력시 인쇄 권한 설정으로 문서에 대한 출력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출력물에 대한 출력정보(원본문서 보관)를 남겨 유출된 문서에 대하여 유출자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각 클라이언트에서 인쇄되는 모든 정보를 서버에 저장관리하여 클라이언트에서 불필요한 인쇄작업의 관리 및 출력시스템 전체의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간편한 웹 베이스 접속방식 채택으로 장소에 관계 없이 모든 클라이언트를 제어 또는 보안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 연결된 전 프린터 인쇄 현황을 파악하여 월별, 년별, 기간별/부서별/개인별 단위 통계치(엑셀 문서 저장 가능)를 얻을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인쇄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안은 물론 경제성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푸른정보기술은 또한 레이저 프린터와 밀접한 에뮬레이션 개발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에뮬레이션은 프린터와 컴퓨터 간 데이터를 주고 받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에는 PCL(Printer Control Language)과 PS(Post Script) 방식 등이 있으며, 각 회사마다 독특한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각 프린터에 맞는 드라이버를 별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푸른정보기술은 자체 순수기술로 현재 가장 진보적인 범용 프린터 에뮬레이터인 PCL6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PCL5e 기반의 A3 모노 레이저프린터 삼성전자 ODM 모델과 자가브랜드에 범용 드라이버가 아닌 소스드라이버를 적용하는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PS(Post Script: 포스트스크립트는 한 페이지 상의 텍스트나 그래픽 요소를 흑백, 컬러프린터 또는 슬라이드 리코더나 화면과 같이 타 출력장치 상에 그려내며 산업계 표준 스케일러블 글꼴인 Type 1이나 트루타입 형식을 다룰 수 있음)에서도 'Label II' 로 파이프라인 포스트스크립트를 라이센스하여 포팅(Porting : 어떤 플랫폼에서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다른 플랫폼에서 작동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말함)· 탑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푸른정보기술의 포스트스크립트는 영문·한글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 보안 솔루션·에뮬레이션 등 꾸준한 개발 노력

프린터 시장은 전 세계 1,400억 달러의 규모로 세계 반도체 시장이 600억 달러 규모임을 감안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며, 큰 성장이나 감소가 없는 안정적 시장으로 꾸준히 성장을 유지하는 비즈니스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또 국내 레이저프린터 시장은 업계간 경쟁이 가열되며 2003년 컬러 레이저프린터는 70% 가량 성장세를 나타냈고, 2004년에는 4~5만대 수준까지 늘어났다. 국내 컬러 레이저프린터 시장 규모도 커질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한국후지쯔, 한국IBM의 프린터 시장 진출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내 기업용 프린터 시장은 2004년을 원년으로 흑백 레이저프린터 중심에서 컬러 레이저프린터로 변화하는 주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컬러 레이저프린터의 경우 올 해 안으로 70만원 대까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요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따라 푸른정보기술은 출력보안 및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 프린트와 관련된 종합적인 컨설팅 솔루션 제공 정책을 수립하고 프린터/솔루션 통합영업조직 신설을 통한 영업 인프라를 확충, 프린터 분야에서 활발한 영업활동으로 아직 인지도 낮은 자가브랜드의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및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한편 친환경적인 정책 운영과 함께 기존 고속 MFP 외 소·중대형 신규 디지털 MFP 판매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국현지법인 설립에 따른 사업장 확보로 기존 조립라인 외에 SMD 시설 추가에 따라 PBA 제조분야에 신규 시장을 개척해 나갈 예정이다.



대표이사 신승현

푸른정보기술을 이끌고 있는 신승현 대표이사는 1974년 경북 고등학교를, 81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과학 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일본 오기 전기공업[주]에서 컴퓨터 연수를 2년간 마친 후 83년 한국 컴퓨터 기술 연구소에 입사했다. 이 곳에서 그는 한글 워드프로세서와 DOS 한글화 작업을 했다. 이후 86년 코리아 제록스에 개발실장으로 입사, 레이저프린터 개발에 참여했다. 이 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89년 신우 정보통신을, 92년 푸른정보기술(주)를 설립(법인전환)했다.

최근 치열해 지고 있는 프린터 시장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비결에 대해 신사장은 "기업의 업무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푸른정보기술은 디지털시대, 최적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변화하는 작업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최적의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경쟁력으로 작용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프린터가 SI 사업에 포함될 토털 솔루션의 일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타사에 비해 저가의 고성능 제품을 확보한다면 시장개척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당분간 인지도와 위상확보에 주력, 적극적인 홍보로 점유율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올해 전략을 밝혔다.